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27호〉
2003년 4월 1일(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http://www.ihufsan.com

창간 1956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주간 김경진 편집장 권정우 인터넷 홈운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969-8887, 961-4183(F))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외대로 89

3 대학
용인배움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실태 보고서

6 사회
외대 속 세계인들의 한 목소리 "STOP THE WAR"

7 문예
영화평 '냉전과 열정사이'

8 문화
7세대 외대인
외대관련까페와 디카족

"교육만은 안된다"

지난 27일(목)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가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8일(금)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7천 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WTO 교육개방저지!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 공공성 쟁취! 3·28 전국대학생총궐기'가 열렸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교육개방 반대에 맞서 6개 대학 총파업을 실시한 전국교육대학 예비교사 대학생들은 '교육부의 양허안 제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며 사전마당을 열었다. 예비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교육개방을 막아내겠다"며 우리 교육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멀리 부산에서 상경한 이정일(부산교대 01)양은 "교육개방을 한 나라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교육개방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를 맡은 박재익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더니 이제 우리나라 교육까지 미국에 팔아 넘기려 한다"며 운을 땐 뒤 "노무현 대통령은 분노에 찬 대학생들의 눈빛을 보고 처신할 것이다"며 "투쟁으로 공교육을 사수한 유럽처럼 투쟁으로 승리하자"는 말로 본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의 양허안 제출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한 모습으로 무대에 선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양허안 제출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을 암흑으로 이끌고, 아이들을 짓밟는 일"이라며 "참여 정부, 개혁 대통령이란 말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항의방문을 위해 모인 최지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김성훈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등은 입을 모아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 3백만 대학생들이 뜰뜰 뭉쳐야만 막아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교육부로 향했다. 이어 한신대, 동덕여대, 숭실대 총학생회장들은 "교육재정확충의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그 누구도 없다"며 "이번만은 대학생들이 나서 교육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향미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의 선창과 함께 투쟁결의문과 요구안을 낭독했다. 내용은 △3월말, 교육 개방계획서 제출을 철회 △WTO교육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5대 악법 전면 철회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대비 7%로 확충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철회 △사립대 회계감사 강화 등이다.

전대기련공동기자단

반전사진전 용인배움터 서유럽대 학생회는 어문관 1층로비에서 반전사진전을 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피해 모습을 전시한 이번 사진전은 오는 4월 4일(금)까지 계속된다. 한주연 기자

서울 전학대회 열려

서울배움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오는 4월 1일(화) 대학원 210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방중보고 △총학생회 총노선 토론 △각 국별 사업계획 심의 △총학생회 기본기구장 선출(복지위원회·외대발전추진위원회) △결산보고 △총학생회 특별기구 활동보고 △회칙개정 등이다.

오스트리아 대사관, 도서 기증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 헬무트 뵈크씨가 지난 24일(월) 우리학교 오지리 도서관을 방문해 책 130권을 기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우리학교 오지리도서관에 정기적으로 책을 기증해 온 오스트리아 당국의 적극적 지원아래 이뤄졌으며 이로써 오지리도서관은 3,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게 됐다.

독일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오스트리아 전문도서관인 오지리도서관에는 오스트리아 문학작품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문화와 관련한 국내의 다양한 전문서적들이 비치돼있다.

'새로운 학생운동'을 말한다

어느 사회나 '금기'와 '성역'은 있는 법. 반세기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최대의 금기는 '북한'이요 최대의 성역은 '미국'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영원한 '금기'와 '성역'은 있을 수 없는 법.

2000년 6월 남북의 정상이 반세기 만에 처음 만나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약속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각계각층의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면서 '북한'이라는 금기는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효순, 미선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오만함과 대한민국의 비굴함에 분노한 30만의 촛불이 전국 방방 곡곡에서 타오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공개적 후원과 조중동의 노골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보란듯이 낙선하는 등 미국이라는 '성역'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금기'와 '성역'에 과감히 도전하여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는 응징과 사회적 '왕따'를 당한 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한총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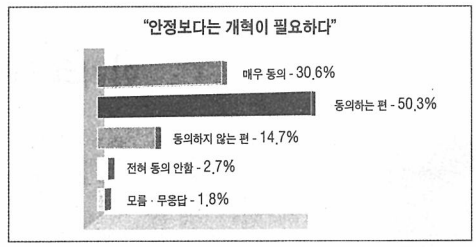
90년대는 '시대변화론과 투쟁무용론'이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던 시대였으며, 한총련이 주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므로 이는 곧 친북좌경적이라는 단순 논법도 통하던 시대였음과 동시에 조중동의 악의에 찬 왜곡편파보도가 한총련 죽이기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다. 한총련에게 있어서 90년대는 이적단체라는 굴레가 덧씌워져 탈퇴를 강요받던 조직을 구속수배를 각오하고 지켜온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겠다.

소수의 운동권들만이 신념을 지켜 투쟁하던 90년대가 지나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와 통일, 사회적 진보와 개혁에 지지,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총련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번 주 〈외대학보〉는 한총련이 전면에 내걸고 치열한 논쟁과 실천에 몰두하고 있는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주제기획 4, 5면

전국대학 새내기 정치·사회의식 설문조사

새내기 80.9%, "안정보다는 개혁필요"



지난 14일(금)부터 20일(목)까지 전국 38개 대학 03학번 새내기 1천 70명을 대상으로 '전국대학 신입생 정치·사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 '반딧불 세대'라고도 불리는 03학번 새내기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았다.

49.3%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

새내기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취업문제다. 응답자의 24.3%가 취업문제라고 답했으며 학교성적도 17.6%를 차지했다. 장래문제에 대해 48.9%가 '자주 생각하는 편', 17.9%가 '항상 생각하는 편'일 정도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걱정은 아닌 듯 하다. 장래직업에 대한 고려사항 첫 번째가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 선호도(42.6%)로 나타나 급여수준 등 경제적 보상(16.4%)이나 사회적 지위·인정(15.8%)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풍요보다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겠다(49.8%)는 것이다. 이는 일류대학 출신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73.1%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내기들은 학벌 등 사회적 지위보다는 자아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매체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MBC(37.9%), KBS(19%), SBS(14.1%)가 각각 1, 2, 3순위를 차지해 영상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겨레신문이 13.3%로 4위를 차지해 종이신문 중 최고순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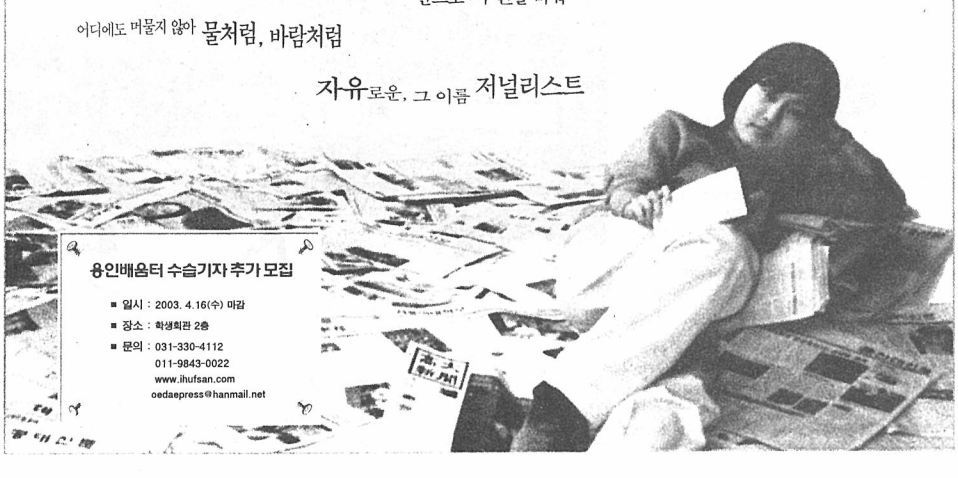
반면 싫어하는 매체 1위인 조선일보(41.9%)는 2위인 오마이뉴스(9.2%)와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벌어졌던 조선일보 반대운동의 영향을 알정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9.8% 노대통령 '잘할 것'

5년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이 '지금보다는 발전해 있을 것'이라고 답해 국가발전과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국가발전과제로 △사회적 평등과 민주화 △정치개혁과 정치민주화 △사회의식과 문화수준 △국제사회 지위 등 4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특히 사회의식과 문화수준은 60.1%가 발전할 것이라고 답해 가장 중요한 발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4.9%가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환경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보여지듯 지난날 외적 성장보다는 환경보호 등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발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기대로 해석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운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89.8%가 '잘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8.4%만이 '잘 못할 것'이라고 답해 압도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과제로 '보수적이고 낡은 정치구조개혁'(33.3%), '우리사회 내 불평등·불합리한 구조개혁'(26.8%),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해제'(17.3%)이라고 답해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응답자의 80.9%가 '안정보다는 개혁'에 더 많은 지지를 표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구체적 개혁대상으로는 정당과 국회가 64.8%, 재벌이 12.4%로 나타나 역시나 정치권에 불신감과 함께 제1의 개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모나켈리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모나선생님. 글을 써놓고 보니 안녕하세요…란 말을 이렇게도 쉽게 선생님께 건네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선생님은 지금 하루하루를,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속에서 보내고 계실텐데. 인터뷰를 마치고 선생님은 급히 강의실로 들어가셨죠. 선생님이 강의하던 그 시각에도, 선생님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바그다드는 폭격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라크 침공이 벌써 12일째입니다. 도무지 전쟁을 안하고는 버틸 수 없는, 미국이란 나라는 이번에 석유를 노리고 이라크를 침공했지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여성들이, 사람들이… 단지 미국의 패권주의적 야심때문에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라크 곳곳에서 어린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움미, 움미, 아얀, 아얀(엄마, 엄마, 아파요, 아파요)"

▲우리나라 정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게 종속적인 이 나라의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한다는군요. 더구나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려고 해요. 죄악임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 전쟁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니.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위안을 줍니다. 전쟁범죄국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양심들이 들고 일어난 까닭이겠지요.

▲선생님, 힘을 내세요… 인터뷰 마지막에 선생님이 흘린 눈물을 기억해요.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던 한국인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지요. 선생님, 저는 겨우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양심들이 선생님과 함께 눈물을…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이라크 민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미국의 패권주의적 야심에 분노하는 수많은 눈물이 있는 한, 이 야만의 역사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눈물은 결국 희망의 눈물이라고. 그러니 선생님, 힘을 내세요.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사회부장

사설

학자추위원장 출마, 민주절차 선행되야

허환희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1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위원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 자연대 학생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보이는 등 용인배움터 학생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장호식 자연대 학생회장은 한총련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없이 학자추위원장에 출마한 점"을 이유로 들어 허환희 총학생회장이 학자추위원장에 출마한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우리는 허환희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의견수렴과정과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학자추위원장에 출마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허환희 총학생회장은 출마전에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를 열어 그 자리에서 출마의사를 밝혔으나 그 자리에서는 충분한 논의도 없었거니와 합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한편, 〈외대학보〉는 지난 826호에 총학생회장의 학자추위원장 출마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생들의 87.5%가 총학생회장이 학자추위원장에 출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결과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총학생회장의 학자추위원장 출마에 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두 번째의 경우, 학생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학생의 대표자인 총학생회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합의를 구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두고 허환희 총학생회장은 결의과정에 대해 "먼저 합의할 수도 있고 결의 후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의 후에 동의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는 대의체계와 민주적인 의사수렴과정을 무시하는 말이다. 결의를 한 후에 하는 '동의'는 학생들을 총학생회의 거수기로 만들뿐이다.

우리는 지난해 서울배움터에서 김재연 전 총학생회장이 대의체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총련의장에 출마한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단대 학생회장급의 학생들이 모이는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학생회장 단독으로 출마를 결정하여 '불신임' 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김재연 전 총학생회장은 한총련의장에 출마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에는 상대방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김재연 전 총학생회장은 그후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의체계를 거치지 않은 한총련의장 출마와 관련, "자신의 과오였다"고 밝혔다. 허환희 총학생회장은 지난 서울배움터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외·대·만·평 〈6〉

허 진

외대학보 826호 비평

오해와 이해의 차이

지난 826호는 825호의 부실했던 내용과 편집을 만회하고자 모든 기자들이 노력했던 신문이었다. 하지만 냉가슴은 독자들의 지적은 기자들에게 다시금 반성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기획 '어머! 그 사람 S대야? 어쩐지…'는 새로운 카스트제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우리사회 '학벌'에 대한 기획이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학벌'이라는 사회적 암 덩어리에 메스를 대는 것은 무리였을까? 아이홈산과 포털사이트 홈스테이프에는 826호 사회기획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학벌을 기획으로 다룬 것은 좋았다는 평과 함께 기자의 취재과정이 '용인배움터'에만 치우쳤다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다. 양배움터를 하나로 묶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외대학보의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한쪽에 편향된 취재를 했다는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한다. 그러나 일부 독자의견은 어째서 우리학교가 학벌사회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지 것처럼 표현했느냐는 의견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의견들은 기사에서 지적한 학벌사회에 많은 외대인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얽매여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자의 의도는 '우리학교 비하'가 아닌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신분의 서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런 오해와 함께 유감스럽게도 학벌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학벌'이라는 잣대로 재단되는 해프닝이 빚어지고 말았다. 많은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호평을 받았던 대학면 기사는 용인배움터 허환희 총학생회장의 학자추장 출마에 관한 기사였다. 용인배움터학생 4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생의 87.5%가 학자추장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번 총학의 출마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출마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냈다. 하지만 대학부 역시 서울배움터 관련 기사가 들어가지 못해 학보가 양배움터의 비율을 맞추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826호는 양배움터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신문이었다.

김용훈 기자

후삼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내외 / 마감 : 매주 금요일 저장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UN체제의 붕괴 가능성

국제사회를 느슨하게나마 규율하고 있는 국제연합(UN)의 존재, 창립 정신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례가 없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 결의안에 관한 상임 이사국들간 의견대립이 심화되어 감정 싸움으로 격화되고 있고 미국에 고분고분 하던 터키, 멕시코등 제 3세계 국가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결의안 통과가 블루멤해지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누구의 허락도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스스럼없이 밝히는가 하면 11일에는 "유엔이 안내와 용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안보리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유엔의 존립 가치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국제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수장의 이런 발언은 유엔 헌장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또 공언하고 있듯이 실제로 미국이 유엔 결의 없이 이라크를 공격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원칙을 나타내는 유엔 헌장 2조를 보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2조 3항)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2조 4항)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항으로 과거 전통 국제법상의 전시(戰時)/평시(平時) 이분법구도가 깨어졌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전쟁(War)을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정책의 합법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받았고 법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만약 A국이라는 나라가 B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면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승전국과 패전국이 강화조약이 체결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고 다른 3국들은 묵인, 회피, 방조를 해야 하는 중립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남을 만큼 끔찍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후 설립된 UN에서는 헌장에서 전쟁(War)이라는 용어자체를 폐기해 버리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불가침을 약속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지며 만일 어느 국가가 이에 위반하여 평화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때는 다른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집단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집단 안전보장제(Collective Security)를 만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무력 분쟁 발발 시 회원국이라면 중립을 지킨다거나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유지되어 오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UN의 결의 없이 정말 혼자 무력 침공을 한 다면 국제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 권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며 미국 자신 또한 UN의 간섭이나 활동 자체에 대해 회의적으로 돌아서 적극적인 참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또 북한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 가능성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프랑스의 경제적 피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는 시라크 대통령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미국의 회복된 이성을 기대해 본다.

하경환(서유럽 · 영어 00)

식사 후 음식 그릇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이 되었다. 이제 03학번 새내기들도 어느덧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한 거 같다. 캠퍼스를 걸어가면 여기저기서 밥 사달라는 새내기들도 많고 그럴 때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하며 한 번씩 그들에게 밥을 사주곤 한다. 때로는 학교 식당 밥이 아닌 학교 앞 음식점의 밥을 사 달라고도 한다. 핸드폰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학교 앞 식당으로 다이얼을 누른다. 여기까지는 좋다. 문제는 식사 후의 모습이다. 용인 캠퍼스의 본관, 후생복지관, 지역학 대학원을 제외한 어느 건물에서나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은 뒤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그릇을 볼 수 있다. 남은 반찬을 따로 버지리 않아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끓고 그야말로 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쓰레기장을 연상케 한다.

특히 기숙사에 방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음식 그릇을 복도에다가 그냥 놓아두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면 대학생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각 건물의 안내실 아저씨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식당에서 그릇을 수거해 가는 아저씨들의 표정도 좋지 않다. 때로는 음식점 아저씨들이 그릇을 수거 해 갈 때 남을 음식을 건물 안의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그릇을 수거하는 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쓰레기 처리가 힘들다는 학교측의 반대로 다시금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고 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는 음식 그릇을 보며 그다지 상쾌하지만은 않다. 특히 우리 학교에 여러 외국인 교수님들은 도저히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은 좋으나 뒷처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한다. 식사 후 그릇을 수거해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그릇을 방치해야 하므로 우선 물 종류의 국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음식 찌꺼기는 쓰레기봉에 버려야 한다. 그게 귀찮다면 적어도 검은 비닐 봉지에 싸서 두거나, 폐 신문지라도 덮어두어야 한다. 좋은 예로 현재 기숙사에서는 건물 입구에 빈 그릇을 놓는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 누군가 귀찮으면 먹지도 말며, 하루의 밥 값을 하라고 했듯이 자기가 먹은 음식과 그릇의 뒷처리를 할 줄 아는 외대인이 됐으면 한다

김정욱(동유럽 · 체코어 97)

버스는 오늘도 '북적북적'

요즘 학교에서는 스쿨버스 증가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이 한참 진행 중이다. 스쿨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눠준 작은 종이는 나로 하여금 스쿨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스쿨버스는 학교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의 스쿨버스는 전혀 학생들의 편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스쿨버스의 수가 모자라 학생들을 모두 수용 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띄엄띄엄 분산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고 싶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스쿨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들로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반버스를 이용해야한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오랜 시간 추위에 떨어야하며, 여름에는 더위에 땀흘려가며 많은 사람들에 매달려 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 학교 안으로 들어온 스쿨버스가 교내셔틀버스(일명 뺑차)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일반 버스에서 내리거나, 기숙사 혹은 자취를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서는 교내셔틀버스(일명 뺑차)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자리가 비어 있는 스쿨버스가 수업을 들으러 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자신들을 그냥 지나쳐 갈 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스쿨버스가 지나가는 것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요금을 받기 위해서란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 돈은 버스를 탈 때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서명운동과 스쿨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 스쿨버스의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

탁은선(동유럽 · 유고어 02)

명수당

이라크 다음은 북한?

서보혁
〈국제관계의 이해〉 강사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미국 지지 및 파병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한국정부의 파병에 반대한다. 그것은 도덕적 이유는 물론 국익 차원에서도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라크의 민주화와 대량살상무기 제거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라크 민중의 힘과 유엔의 절차에 따라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국의 국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국민 의식의 총합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렴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전쟁 반대, 파병 반대의 논리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단순논법과는 거리가 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우려는 공교롭게도 정부와 반전운동진영 양쪽에서 모두 발견된다. 여기에는 이라크문제와 북한문제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부시정부의 대외정책이 감경일변도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먼저, 이라크문제와 북한문제는 전자의 경우 미국의 지정학적 · 지경학적 이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지정학적 이해가 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라크문제는 석유자원의 독점적 지배, 유럽과 서남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확보(이란 포함)라는 두 가지 이해가 중첩되어 있다. 그에 비해 북한문제에는 지경학적 이해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또 후세인정권은 냉전 해체 이후 루웨이트를 침략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테러활동과 연계된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 세가지면에서 어떠한 행동을 자행한 바 없다.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해결과 관련해 미국과 이라크는 대화가 없었지만,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고, 지금도 구체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와 북한 문제가 다르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부시정부의 대외정책 행태가 일방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미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이야기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부시행정부 안팎에서 유태계 인사와 석유기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미사일방어망 추진에 이해를 갖는 미 국방당국과 군수업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방어망 추진에는 북한 공격이 아니라 북한위협론의 재생산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에다가 이라크 전쟁 비용을 안고 있는 부시정부가 (전후 복구 및 친미정권 수립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서라도) 대선 국면을 앞두고 높은 정치적 부담을 가질 대북 행동을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필자는 한반도에 이라크 이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작용-반작용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이때 양국의 상호작용이 불신과 오판에 의해 부정적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데 한국의 외교력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파병으로 답보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모두 다같이 참여하는 자리였으면

백지 대자보

제목 : 학생운동, 이렇게 바뀌었으면…

폭력과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 비폭력주의자

학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일 했으면
-이익단체

현실적으로 하세여
-현실주의자

합당한 명분을 세우자
- 논리야 놀자

늘 전체적으로 생각하세요
-think big

한번 할때 제대로 하자
-화끈걸

재미있게, 신나게~
-날라리

선동적인 문구를 자제했으면…
-무서워요

엽기토끼의 감수성을 본받자
- 마시마로

신세대의 감성과 정서에 맞게
- 신세대

거부감이 안들게
-거북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줘
-들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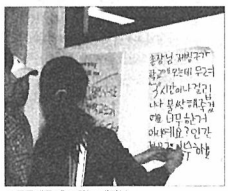
외대 월드컵

위는 서울배움터 모의월드컵 중 16강 3번째 경기인 인도어과와 행정학과의 시합 모습. 이 경기에서 결국 인도어과가 3대 2로 행정학과에 승리했다. 한편 모의월드컵은 오는 4월 4일(금)까지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

권정우 기자

용인배움터 교통문제를 점검한다

7000명을 싣는… 버스 3대?!



교통문제를 호소하는 대자보

매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용인배움터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하는 왕산의 교통문제이다. 용인이란 지리 여건상 자가용을 타지 않고 등교하는 유일한 방법은 버스이다. 따라서 타 학교에 비해 스쿨버스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용인배움터의 교통문제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용인배움터의 '뜨거운 감자'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교통문제에 대해 속시원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고 있다. 용인배움터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교통문제의 실태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열해 본다.

첫째는 턱없이 부족한 스쿨버스의 문제이다. 스쿨버스에 대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기존 스쿨버스의 증차, 노선과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까지 운행되고 있는 스쿨버스의 노선은 수원, 용인(신갈), 수서, 영등포, 이문동, 천호동, 광화문 총 7개 이다.

각 노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원역에서 출발해 수지를 거쳐오는 수원행은 등교시 1회 2대의 스쿨버스가 동시에 출발하고 하교시 1대의 스쿨버스가 1회 운행 된다. 수원행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최슬기(서양·이태리어 00)양은 "등교시 운행되는 2대의 차량조차도 이미 수원역에서 부터 학생들로 꽉 찬다"며 "더욱 심각한 건 하교시이다.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8교시 수업을 포기하고 줄을 서야만 탈수 있다"고 말했다.

이문동행을 살펴보면 이문동 서울배움터에서 출발해 태능을 거쳐 학교까지. 등교시 1회 하교시 1회 운행된다. 이문동행 노선의 경우, 현 운영체계로는 통학생 전체를 다 소화해 내지 못해 임시적으로 용인배움터 셔틀버스 한대가 아침에 투입됐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여혜영(서유럽·헝가리어 03)양은 "아침에 서서 오는 것도 모자라 결국 다 타지 못하고 일부는 결국 강변에서 버스를 타고 온다"며 "겨우 서서 타고 오는 날도 발을 못 움직여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한다"며 "앉아서 올 때면 다른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교내 셔틀이 투입된 이후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아직 미흡하다.

노선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 역시 잦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스쿨버스가 증차된다면 아침마다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 사당, 잠실, 강남, 분당 지역들과 소외된 노원, 상계, 강북과 부천 인천과 같은 경기지역 까지 노선을 다양화해 학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대를 자주 운행하자는 학생들의 요구와 관련해 김미희(동유럽·체코어 02)양은 "3, 4교시 수업이 있는 날도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마치고 학교행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총무과 주임 박상호씨는 "스쿨버스와 관련해 현재 총무처에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중"이라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하고 학교측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위는 사당에서 노선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둘째는 노선버스의 문제이다.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노선버스를 타고 통학 한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주)경기대원고속의 1117번, 1117-1번, 13번, 1500번 1500-2번이 있다. 이들 노선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다는 점과 아침시간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려는 학생들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져 입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당에서 1500-2번을 이용하는 허은수(서유럽·서반아어 03)양은 "1교시가 든 날 버스정류장에는 학생들이 50~60미터씩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한 "2, 3배는 기본으로 보내고서야 겨우 내 차례가 오고 그래도 서서오는 경우가 많다"며 "배차간격 또한 15분에서 많게는 25분까지 기다린다 보면 1교시는 지각하기 일수"라고 말했다. 노선버스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은 등교시간대에 맞춰 배차시간을 좁혀 줄 것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스쿨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주)경기대원고속 소장 조민호씨는 "현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배차간격을 조절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하겠다"며 "손님의 3분의 1이 외대 학생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일반 손님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같은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만 일찍 서두른다면 서서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셋째는 교내셔틀의 불규칙적인 배차시간이다. 이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매우 크다. 최슬기(서양·이태리어 00)양은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해도 빨차 기다리느라 지각한다"며 "일정한 배차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용인배움터의 교통문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측의 통학버스 확보를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문제와 관련해 총학생회에서는 현재 스쿨버스 30대 증차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용인배움터 5,000명 학생들의 서명을 목표로 한 이번 운동은 현재 3,600여명의 서명서를 받았고 학생들에게 기대 이상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위원장 이동수(인문·사학 00)군은 "5,000명의 학생들의 서명서를 받아 학교측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할 것"이며 "교통문제 완전해결을 위해 스쿨버스 30대 증차를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뽑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중이며 생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 안을 얻어낼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학생 대표들은 교통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 1차 부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학생들의 요구안에 대해 14일(금) 서면을 통해 총장의 답변받았고, 27일(목) 용인 캠퍼스에서 총장과의 2차 면담을 가졌다. 총장과의 면담에서 교통문제와 관련해 학생 대표들은 '왕산 교통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스쿨버스 30대 증차'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총장은 "스쿨버스에 대해 학생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몰랐다"며 "2005년 2,000명 규모의 기숙사가 완공된다면 장기적으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스쿨버스 2대를 구입하도록 책정돼있고, 추가적인 증차와 노선의 다양화는 학생들과 대학당국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 문제와 관련해 안병만 총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 거리가 아닌 통학버스 확보율 부족으로 인한 대기시간의 문제

이에 학생회장 허환희(동유럽·노어 97)양은 "대학당국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첫 면담보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생들의 서명운동 동참에 큰 힘을 얻어 조금이나마 논의의 여지가 생겼고, 조금 더 힘을 모아 이후 여러 요구 사항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iterr1004@hanmail.net

사례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등, 하교시 운행하는 스쿨버스는 부천, 신촌, 분당 등 총8개의 노선이 있다.

지난해까지 안산배움터 스쿨버스는 총8개의 노선을 운행했다. 작년까지는 등교시 잠실과 분당 노선이 함께 운행하던 버스가 있었다. 하지만 스쿨버스가 막상 분당에 도착하면 분당 학생들은 약 1시간이나 걸리는 시간을 버스 안에서 서서 가야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분당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올해 1학기부터 두 노선으로 갈라졌고, 이후 스쿨버스 요금이 200원 올랐다.

스쿨버스를 학교 소유의 버스로 운행하다 보니 시험, 축제 등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은 시기에 버스를 융통성 있게 운행하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견의가 있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행하기 위해 관광버스 회사에 일정 금액을 주고 스쿨버스 운행을 관광버스회사에 맡긴다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2~3년 내에 시행될 것 같다고 한다.

교내 셔틀은 한양대 앞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운행을 한다. 버스비는 무료다.

5년전에 학교측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총학생회측에서 잘 처리해 아직까지 무료로 운행중이다.

스쿨버스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엄청난 학생들이 몰림에 따라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다는 점이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작년 2학기부터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과 교직원버스를 셔틀버스로 돌리는 등 셔틀버스를 4대 확보하는 효과를 얻어 지금은 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사라졌다. 또한 수원 등 가까운 곳은 굳이 스쿨버스를 돌리지 않고 안산, 수원시와 얘기해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고 증차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 iterr1004@hanmail.net

새내기 90%, 시민운동 활성화 · 진보정당 필요성에 공감

· 91.9% '개혁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필요'

이러한 새내기들의 높은 사회적 관심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현안에서 '개혁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각각 91.9%, 92.6%가 필요하다고 답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주5일 근무제 즉각 시행에 77.2%,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에 80.8%가 동의의 뜻을 표해 노동조건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결혼 후 여성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에 91.5%, '남녀평등 차원에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에 83.0%가 지지하는 등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민주화의 소속한 실현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이중국적, 특권층 자녀라는 이유로 병역면제 받아서는 안 된다'에 88.0%,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한다'에 68.7%, '병역비리 없애는 근본방법으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에 60.7%가 답하는 등 병역비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새내기들은 사회현안에 대해 진보적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참여정도는 아직 높지 못하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의 경우 51.7%가 서명운동에 동참한 반면 촛불시위는 24.2%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67.8% '국가보안법 폐지'

최근 남북관계가 북핵문제, 대북지원설로 인해 소강상태에 들어선 반면 새내기들의 통일의식은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였다.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대북지원에 대해 △현 국가보안법 폐지(67.8%), △주한미군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철수(62.6%),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협정) 개정(86.4%),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지원 지속(67.8%)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모두 남과 북의 평화적 관계를 지지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질문에는 58.5%가 '꼭 통일해야 한다'고 답해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로 '통일'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외교적 독립과 국제사회의 지위향상'(30.2%), '민족분단의 고통 해소'(26.7%), '경제적인 강대국 실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22.4%)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9.7%가 '적대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도 좋다'는 의견에 지지를 표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33.6%), '남북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혼란'(29.2%), '남북한 정치체제 혼란'(24.5%)을 들었다.

그러나 '적대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도 좋다'는 것은 통일을 반대한다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전제된다면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에 있어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평화 지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87.7%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제적 평화유지'라고 답한 사람은 7.3%에 그친 반면, '중동지역에 대한 지배의도'와 '중동의 석유시장 장악'이 각각 46.2%, 40%를 차지해 평화는 명분일 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03학번 새내기들의 정치·사회의식은 사회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그 입장에 있어서도 진보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중생 사건 참여정도에서도 나타났듯 높은 의식수준과는 달리 사회적 참여정도는 아직 낮다. 이는 생각과는 달리 행동에서 소극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과 기회가 아직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겁고 패기 넘치는 대학생활. 새내기들이 그 속에서 마음껏 자기생각을 발산하고 표출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많아질 때 우리사회는 진정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

오늘은 이라크, 내일은 한반도?

220년 역사에서 130여회의 불법 무력행위를 저지른 미국.
전세계 민중들의 '전쟁반대' 목소리를 뒤로한 채
미국의 세계 패권 · 석유 독식의 야욕은
오늘, 이라크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은 이라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반대'를 외치지 않는다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한국 정부의 파병을 반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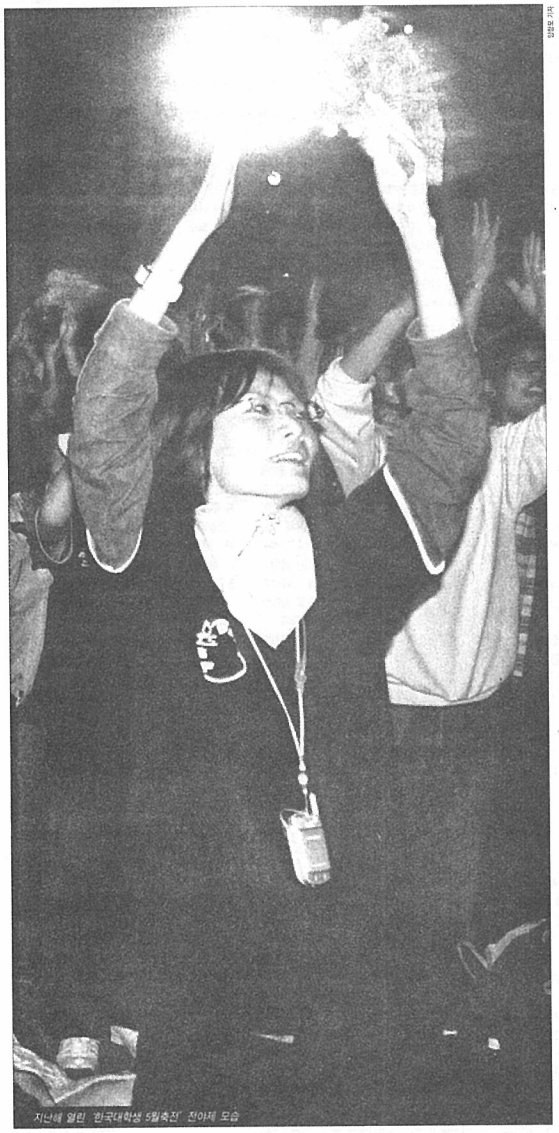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점심B	학생 점심C	학생 저녁	학생 면
월 (31일)	꽁치조림백반 (₩1,0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잡채밥 (₩1,500)	순두부찌개 (₩1,300)	해물카레덮밥 (₩1,600)	바지락칼국수 (₩1,200)
화 (1일)	오징어콩나물찌개 (₩1,400)	볶음밥&불고기 (₩1,600)	포크커틀렛 (₩1,6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소고기국밥 (₩1,500)	쟁반국수 (₩1,200)
수 (2일)	돈육김치찌개 (₩1,400)	낙지야채볶음덮밥 (₩1,600)	짝장짬식 (₩1,500)	설렁탕 (₩1,500)	부추비빔밥 (₩1,500)	스파게티 (₩1,200)
목 (3일)	대구매운탕 (₩1,400)	돈육볶음덮밥 (₩1,400)	미네르바정식 (₩1,600)	닭개장 (₩1,400)	소고기모듬야채덮밥 (₩1,500)	콩면 (₩1,000)
금 (4일)	불고기백반 (₩1,000)	비프하이라이스 (₩1,400)	가재커틀렛 (₩1,600)	얼갈이곰탕 (₩1,500)	양송이볶음밥/소스 (₩1,400)	잔치국수 (₩1,0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중식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별식	후복관 일품	후복관 분식	후복관 양식
월 (31일)	오징어덮밥 (₩1,500)	왕산정식 (₩2,500)	잔치국수 (₩1,300)	떡만두국 (₩1,800)	콩면 (₩1,300)	미트스파게티 (₩2,000)
화 (1일)	우거지갈비탕 (₩1,800)	라이스오믈렛 (₩2,000)	바지락칼국수 (₩1,300)	설렁탕 (₩1,800)	잔치국수 (₩1,300)	돈육커틀렛 (₩2,000)
수 (2일)	카레라이스 (₩1,500)	스파게티정식 (₩2,000)	떡만두국 (₩1,300)	봄나물비빔밥 (₩1,800)	비빔국수 (₩1,300)	모듬커틀렛 (₩2,000)
목 (3일)	설렁탕 (₩1,800)	수제포크커틀렛 (₩2,500)	물냉면 (₩1,300)	만두육개장 (₩1,800)	어묵우동 (₩1,300)	김치볶음밥 (₩2,000)
금 (4일)	김치해물볶음밥 (₩1,500)	카레돈가스 (₩2,000)	어묵우동 (₩1,300)	삼선짜장덮밥 (₩1,800)	짝장면 (₩1,300)	카레볶음밥 (₩2,000)

지금, 왜 '새로운 학생운동' 인가?


지난해 열린 '한국대학생 5월축전' 전야제 모습

학생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해마다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 학생운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70%가 넘는 높은 지지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학생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체감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학생운동은 소수 운동권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나 학생회 일꾼들의 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운동방식,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회 내부서 '새로운 학생운동' 논의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생운동 내부에서 이른바 '새로운 학생운동'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생운동 혁신에 대한 논의야 항상 있어왔지만 올해처럼 학생운동권이 정파를 뛰어넘어 공히 '새로운 학생운동'을 전면에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새로운 학생운동'이 전면에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과거 90년대는 학생운동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웠던 시기였다.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와 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정권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많은 학생들을 수배·구속했고, 한총련이 주최하거나 가담하는 행사와 집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고 행사 참가자들을 전원 연행하였으며, 언론과 교육당국을 총동원하여 한총련 죽이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운동조직을 떠나게되고 학생회장이 되면 구속수배를 각오해야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생회가 급속도로 무너지며 학생운동 대중 역량의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이와 함께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불어닥친 개인주의, 탈정치화의 열풍도 학생들이 학생회라는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하게 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96년, 97년 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한 학생이 4~5만여명에 달했던 것에 비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후 98년 출범식에 참가한 학생이 3천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도래

그러나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오면서 90년대와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중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오던 반북반공이데올로기가 일정부분 약화되고 노근리 학살, 매향리 문제 등에 이어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2002년 반미촛불시위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된 것.

9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정도가 높아지고 그 진출이 활발해진 최근의 흐름 속에서 학생운동권은 과거 운동권만이 하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운동권, 비운동권의 울타리를 허물고 전체 학생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전면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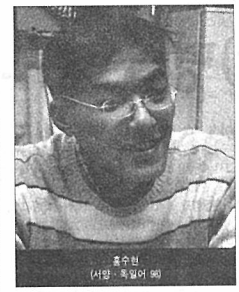
현재 한총련내에서 '새로운 학생운동'에 대한 논의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의 문제, 새로운 학생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한총련 내의 대대적인 인식 물갈이가 중요하냐·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새로운 학생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 운동권내 정파간 단결을 중심으로 보느냐 등 여러가지 쟁점들이 존재하고 이는 현재, 치열한 논쟁중에 있다.

대다수 학생들을 포괄하는 학생회 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히 주장하고 있는 내용, 즉 대다수 학생대중들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학생회,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생운동방식, 대다수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운동조직 건설 등을 각 학교들이 자기 학교에서부터 현실에 옮기는 것이 아닐까.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홍수현
(서양·독일어 98)

"여태까지 총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생들에게 통보식으로 알리는 과정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렇지만 한사람 한사람 직접 찾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가. 외대가성원 모두가 알고있는 '홈스라이프'처럼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듣는다면 학내의 일에 참여하는 학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김인규
(서유럽·영어 03)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쉽지 않고 계기도 찾기 힘들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 성향이 강해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등 소속감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 알리고 캠페인을 여는 등 미시적 운동이 먼저 필요하다."

한지혜
(사범·불어교육 03)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전부인데 학생운동은 과격하고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들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학회나 과방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학생운동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김세영
(정보산업공·컴퓨터 공학 98)

"학생운동은 단지 참여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에게 얼마나 느끼게 하는가?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에서는 어떤 사실 자체를 보여주고 난 후에 학생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개인의 생각부터가 깨어야 한다."

공 고

200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취소(삭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수강신청 취소 기간 : 2003. 4. 7(월) ~ 4. 11(금) … 5일간
2. 수강신청 취소 시간 : 매일 09:00 ~ 20:00
3. 수강신청 취소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취소
(단, 재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해당대학 교학과에서 재수강 신청 취소를 하여야 함)
4. 제한 : 취소하여 12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안됨 (4학년 제외)

2003. 4

교무처장

사범대 학생을 위한 '자기 성장 프로그램' 실시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교사로서의 인격적 특성을 연마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극 참여하여 장차 훌륭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의 목적
교사는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에 사범대학에서는 예비교사인 사범대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간적 자질을 개발하는 기회를 주고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의뢰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대상 : 사범대 학생 120명(선착순)
3. 장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내 집단상담실(전화 : 교내 4164)
4. 운영일정

차수	운영일정			프로그램 실시일 및 총 진행 시간				대상인원
1	2003년 4월 오후 3시 ~ 오후 5시	월	연속 4회	4/7	4/14	4/21	4/28 (8시간)	10명 내외
		수	연속 4회	4/2	4/9	4/16	4/23 (8시간)	10명 내외
		금	연속 4회	4/4	4/11	4/18	4/25 (8시간)	10명 내외
2	2003년 5월 오후 3시 ~ 오후 5시	월	연속 4회	5/5	5/12	5/19	5/26 (8시간)	10명 내외
		수	연속 4회	5/7	5/14	5/21	5/28 (8시간)	10명 내외
		금	연속 4회	5/9	5/16	5/23	5/30 (8시간)	10명 내외
3	2003년 9월 오후 3시 ~ 오후 5시	월	연속 4회	9/8	9/15	9/22	9/29 (8시간)	10명 내외
		수	연속 4회	9/3	9/17	9/24	10/1 (8시간)	10명 내외
		금	연속 4회	9/5	9/19	9/26	10/3 (8시간)	10명 내외
4	2003년 10월 오후 3시 ~ 5시	월	연속 4회	10/6	10/13	10/20	10/27 (8시간)	10명 내외
		수	연속 4회	10/8	10/15	10/22	10/29 (8시간)	10명 내외
		금	연속 4회	10/10	10/17	10/24	10/31 (8시간)	10명 내외
합계	12개조(?)			총 96시간				120명 내외

*주 1회씩 총 4회(한달) 참여요망 *공휴일은 추후 조정함

5. 신청결차 : 위 프로그램은 사범대 학생에게는 필수적이므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장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2003 국제 학생교류 및 미국 비자 추천 프로그램(URP) 설명회

◈ 일시
2003. 4. 2 (수) 오후 1시

◈ 장소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

◈ 진행순서
가.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안내
나. 복수학위제도 및 교환학생제도 안내
다. 하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안내
라. 미국 비자 추천 프로그램 안내

◈ 문의처
대외협력과 (Tel : 961-4387)

연구·대외협력처장

외국어연수생 모집 (약간 10주과정)

▣ 교육기간 : 2003년 4월 21일(월) ~ 6월 27일(금), 10주

▣ 모집과정 및 학과
· 일반인, 대학생과정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노어 등 (총 24개 외국어)

▣ 수업시간 및 요일
· 대학생과정 17:40 ~ 19:30 주 4일(월, 화, 목, 금)
· 일반생과정 19:40 ~ 21:30 주 4일(월, 화, 목, 금)

▣ 신청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2003. 3. 24(월) ~ 4. 10(목)까지 선착순 외국어연수평가원(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수강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 반명함판 1매(원생증발급용), 등록금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자격 제한 없음(타 대학교 학생도 지원 가능)

인터넷 접수 방법 - http://flttc.hufs.ac.kr ⇨ 연수부 ⇨ 온라인 원서접수

▣ 수강료
· 납부기간 : 2003. 3. 24(월) ~ 2003. 4. 10(목),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납 및 은행
· 입금계좌 : 제일은행 외대지점 132-10-000154, 한국외국어대학교
· 은행으로 온라인 송금시(타인명의로 입금할 경우 확인전화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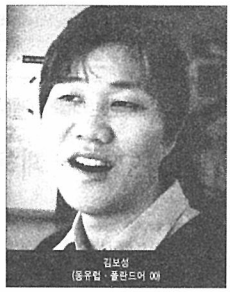
▣ 반편성시험(Level Test)
· 일시 및 장소 : 2003. 4. 12(토) (대학생 14:30, 일반인 15:3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 각 해당 언어별로 Level Test (외국인 강사와 1:1 인터뷰)
· 발표 : 2003. 4. 16(수) 11:00 본 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전화문의 가능)

▣ 기타
· 교육기간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언어실습실) 등 교내시설 이용가능
· 문의처 - ☎ 961-4174/5, 962-7119, FAX : 962-0575

외국어연수평가원

새로운 학생운동… 이것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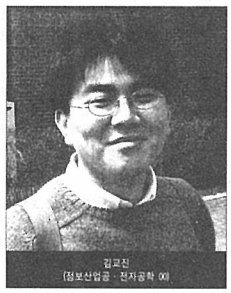


김보성
(통유협 · 폴란드어 00)

"과학생회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과학생회 안에서 사회문제 학내문제 정치문제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 과 안에서 어느정도 다수의 의견을 이끌어 낸 후에 한부분 한부분씩 고쳐나가는 것이 학생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욱
(통유협 · 체코어 97)

"회사에도 노조가 있듯이 학생운동 또한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예전처럼 선동적이고 딱딱하게 주제를 알리기보다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김교진
(정보산업공 · 전자공학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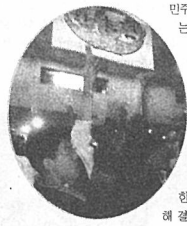
"기존의 학생운동은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좀더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문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길제동
(사범 · 영어교육 98)

"학생회라는 틀 자체에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 낡은 틀을 깨야 한다. 이런 틀은 몇몇이 모여 모색하거나 참여하는게 아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리나 소모임에서부터 틀을 만들어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취재 · 사진 한주연 기자
naoki777@hanmail.net

같이하는 운동, 같이 결정하자!



민주주의, 학생운동이 진정 300만 대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요건이다. 모든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합의된 내용을 전체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한총련이 지니고 있는 대의(代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직접 뽑은 학생대표자들이 자기 단위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 · 대표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체계를 강화한다면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그 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업을 다시 각 대학의 전학대회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한다면 한총련의 민주성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각 대학의 학생회에서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한총련내에선 이미 '과 · 학번별로 여론센터를 개설하자', '개인과 각 단체가 자발적으로 구성 · 활동하는 의제위원회를 설립하자' 등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롭게 떠오른 온라인공간을 한총련이 잘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미 대학사회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익힌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이상,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한총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학생들은 △조직운영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학생들의 참여보장 등을 통해 평균이상의 민주주의를 구현, 전체학생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있고 흥겹게, 감수성의 코드맞추기!

올해 대학에 들어온 03학번은 1984년생.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능숙하고 스타크래프트와 해리포터를 즐기는 세대다. 개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한,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새로운 대학세대들의 감수성에 맞춰 학생운동의 방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새로운 학생운동의 필수적 조건이다.

많은 학생들은 지난해 겨울 촉불시위가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자칫 과격하다는 느낌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방식이 아닌, '촛불시위'라는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일치하는 운동형식은 학생만이 아닌 수많은 시민을 거리로 불러냈다는 것이다. 점차 흥겨운 축제가 되어간 촛불시위는 '시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단숨에 깨버리며 시위문화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 대중의 날카로운 감수성과 민족하라', '과격한 투쟁이나 정치연설 위주의 집회를 지양하고 문화기획력을 강화하는 등 대중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라', '정치적문제에만 몰두해 학생들의 생활문화적인 요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한총련에게 쏟아지는, '함께 실천하기 위한' 학생들의 바람이다.

이와 관련,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허환희(통유협 · 노어 97)양은 "최근 등록금투쟁에서도 피켓이나 유인물부터 투쟁일변도의 강경한 방식이 아닌, 대중적인 방법을 사용하니 학우들의 신선해하는 반응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우 대중들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기초적인, 과/반 학생회속으로 뿌리내려라!

학생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과/반 학생회다. 학생운동의 주체는? 역시 과/반 학생회다. 학생회에서, 학생운동에서 대중성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과/반 학생회 문제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과/반 학생회를 강화하는 일은 곧 300만 대학생속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과/반 학생회를 강화하기 위해선, 94년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된 학부제의 도입이후 급격히 약화된 학생회로서의 소속감을 살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는 의견이 크다. 학기초부터 반학생회를 구성, 이를 후원하여 학생회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

또한 과/반 학생회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학회와 소모임을 살리는 것도 큰 과제다. 여러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의 요구와 감각에 맞는 학회와 소모임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행 · 정보통신 · 문화비평 · 신문읽기… 화생들의 자발적 요구로 이뤄진 여러 학회와 소모임을 살리고, 이를 과/반 학생회와 연계하여 새로운 대학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저히 학생들의 사고와 언어, 그리고 생활에 밀착하는 길은 가장 기초적인 과/반 학생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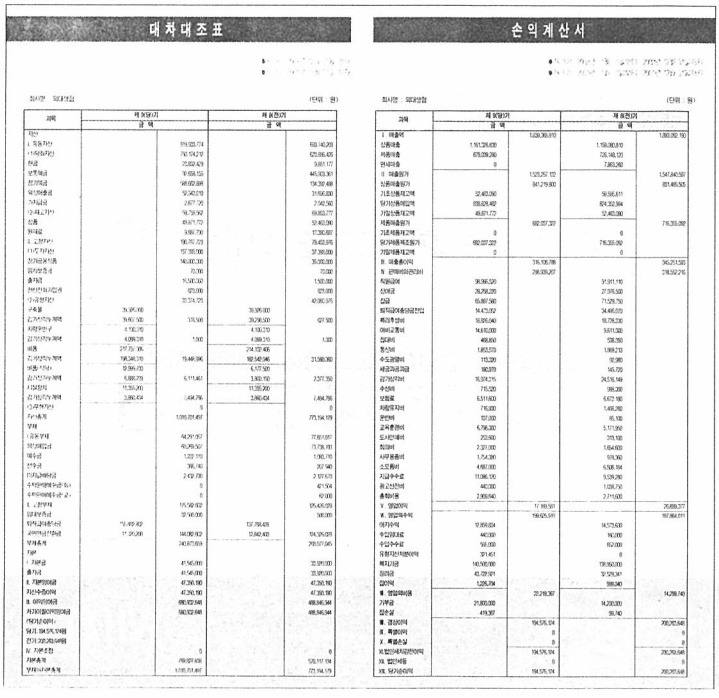
기획 : 양창모 기자hufshan@hanmail.net

1만의 한총련을 넘어, 300만 모두의 새로운 조직으로!

2003년 현재, '한총련'이란 이름으로 집회에 나가는 학생들의 수는 대략 1만명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 수는 300만. 나머지 299만명의 대학생들 대부분은 소위 '비운동권'인 셈이다. 진정 학생운동이 300만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탈바꿈하려면,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가르지 말고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총련'의 틀을 깨고 모두 같이 모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학원자주화투쟁에 '권'과 '비권'이 갈라지지 않고 공동투쟁을 전개한 사실에 주목하는 여러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학생운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론과 재반론이 오가는 자유로운 만남과 토론을 보장하고, 한총련이 아닌 대학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만이 300만 학생대중의 요구가 그대로 담긴 학생운동조직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 · 신문방송 96)군은 "버려서는 안 될 원칙은 학우중심, 민중중심이라는 것"이라며 "그 외에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학생운동체를 조직하려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조직 건설의 방법적인 면에서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연합을 중심으로 보는 의견과 운동권내 여러 정파들의 단결을 중심으로 보는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300만 대학생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학생운동체를 조직하자는 의견은 일치해 보인다. 학생운동은 과연 300만 대학생 모두가 함께 하는 운동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인가?



외대인 한 목소리, "STOP THE WAR"

기획 : 김용훈 기자 yonghun2000@hanmail.net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반전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외대학보》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베트남·중국·영국·일본·이라크 출신의 외대인들을 만나 그들의 '반전입장'을 들어보았다.

베트남 - 반유이투언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3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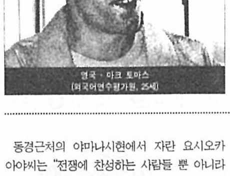
"전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제 조국 베트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전쟁에 반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베트남전 이야기였다. 그의 첫마디는 기자에게 베트남 파병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한 사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당시 파병했던 한국이 또 다시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며칠전 한국에서 공부하는 자신에게 보내온 여자친구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다. "여자친구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제게 터뜨렸습니다. 여자친구의 편지에는 한국의 파병의 이유에 대해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전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파병으로 또 한번의 전범국이 되려고 하는 한국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질렀던 양민학살의 상처는 베트남 중부지방 퀴농(QUINHON)시에서 아직도 찾아볼 수 있다며 "한국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난 92년 국교 수립 이후 좋아진 베트남에서의 한국의 이미지가 이라크 파병으로 나빠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라크 민간인들의 희생을 보면 자신의 조국 베트남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그는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추게 해야한다며 "이대로 계속 전쟁이 진행된다면 세계의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국제여론이 이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제질서는 미국의 폭력 앞에 어떤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전쟁이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교류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중국유학생 중제정군은 한국정부의 이라크전 지지를 보며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보게 됐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그는 "앞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과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지지해야만 하는 대미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한국의 현실에 아쉬워했다. 그는 전쟁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많은 사람이 살해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지난 99년 미국의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이야기를 꺼냈다. "미국은 이라크의 민간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세계제일의 첨단무기 생산국이 미국이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그 이야기는 명백한 거짓말인 걸 알 수 있다. 베오그라드 사건 역시 실수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중군은 당시 중국의 반미감정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15개 UN안보리 이사국 중 거부권을 보유한 5개의 나라 중 하나인 조국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앞날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중국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을 잘 살리지 못하면 중국 역시 한국처럼 미국의 패권주의에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라며 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막을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군은 인터뷰를 마치며 취재수첩을 덮는 기자를 보며 "베오그라드의 수많은 무고한 중국인이 죽었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마지막 말로 이라크 전쟁 중단의 소망을 전했다.

중국 - 중제정
(사회·정치외교 01)


영국 - 마크 토마스
(외국어연수평가원, 25세)

"전쟁은 옳지 않아요. 지금도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라고 입을 연 영국인 마크씨는 조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한다. 마크씨는 "영국국민의 대부분이 전쟁에 반대했는데도 토니 블레어는 부시만 쫓아가고 있어요. 블레어의 인기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가 영국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라며 자신의 조국 영국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서 그는 "영국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된 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물론, 부시나 블레어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영국인이라도 전쟁반대라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며 전쟁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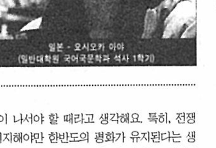
전쟁지지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국정부가 전쟁지지와 파병 약속을 한 것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의 뉴스는 영국에서 본 뉴스와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라며 "영국은 지금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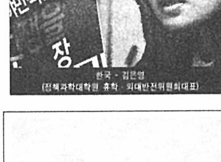
영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영국군이 이라크 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그는 "이라크에 있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안할 뿐이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전쟁이라는 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영국인 마크씨의 표정은 무척이나 곤란해 보였다. 그는 "영국 국민의 삼분의 일이 참여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반전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전쟁도 중단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동경근처의 야마나시현에서 자란 요시오카 아야씨는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들도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번 전쟁은 어떤 명분도 없는 전쟁이지만 설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본에서의 반전운동에 대해서 설명했다. "일본은 원래 시위라는 것이 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전쟁에 관해서는 고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미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는 운동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의 지지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부끄러운 듯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모두 어쩔 수 없는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인인 저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치가들은 당장의 국가 이익에 너무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고 전하며 일본정부의 지지표명에 유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녀는 일본정부의 지지표명 때문에 이라크의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단체들이 피해자들에게 원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전쟁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각 국가의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계속해서 전쟁반대를 외친다면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가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만큼 이라크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쟁반대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전쟁반대에 나서야 할 이유를 말했다.


일본 - 요시오카 아야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1학기)


한국 - 김은영
(정책과학대학원 휴학·외대반전위원회대표)

"일어나서는 안될 전쟁이 발발한 직후 나온 신문이예요." 외대반전위원회 대표 김은영씨가 기자에게 건낸 신문에는 '이 야만적인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는 문구가 그녀의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듯 커다랗게 박혀있었다. 지난 24일(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한국군 파병반대 시위에 다녀왔다는 그녀는 한국정부의 '전쟁지지' 입장에 대해 물어보는 기자의 물음에 답답하다는 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노대통령은 전쟁지원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라크 파병안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덧붙여 그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패권정책에 끌려다닌 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며 베트남전 파병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파병역사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을 겪어 본 나라잖아요. 지금까지는 젊은이들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쟁을 지지해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은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진작 없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김씨는 한반도 내의 위협들이 전쟁세대들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녀는 전세계적인 반전운동만이 야만적인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 - 이라크인 모나켈리 아랍어과 강사

"이라크는… 폐허로 변하고 있다"

양창모 기자

이라크인 모하메드 알리 모나켈리(49세, 아랍어과 강사)씨는 바그다드에서 40년이 넘게 살았다. 97년 우리나라에 온 후 2000년부터 우리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한 그녀에게 바그다드는 추억이 깃든 고향이며, 특히 그녀의 형제자매 5명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녀를 만난 27일(목)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8일째 되는 날. 신문은 전날(26일) 미-영군의 바그다드 폭격이 재개됐다고 알리고 있었다.

친지들과 연락은 되는가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다. 나의 형제 2명과 자매 3명이 모두 바그다드에 살고 있다. 어제 격렬한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나의 모든 형제자매가, 공격받는 바로 그 바그다드에 있다.

그들로부터 듣는 현지 상황은 어떠한가

전쟁이 계속되면서 바그다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나의 여동생… 여동생의 집은 창문이 다 깨어지는 등 많은 공격을 받았다. 여동생은 지금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만 밭에 대피하고 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추운 바깥에 나가,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바그다드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다. 물자도 부족하다. 심지어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물품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전기도 하루에 2시간밖에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과 아이들의 고통이 심하다. 1차전쟁(걸프전을 뜻함)에서 미국이 살포한 생화학무기로 인해 이미 이라크에서는 기형아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제(26일) 카르발라(바그다드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와 나자프(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 도시)에 미-영군이 대대적인 미사일 폭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천명이 넘는 민간인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바그다드에 수십개의 폭발물이 터졌다고, 언니가 어제 전화로 알려줬다. 그 폭발물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터졌다고 한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후세인정권을 전복시켜 이라크인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무기? 지금 누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미국이 이라크에게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라크에게는 미국에 대적할만한 무기가 없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라크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석유때문이다. 석유는 이라크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 석유마저 빼앗으려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을 지지한다면서 파병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정책이 한국인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한국에서 최근 일어나는 여러 반전시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한국국민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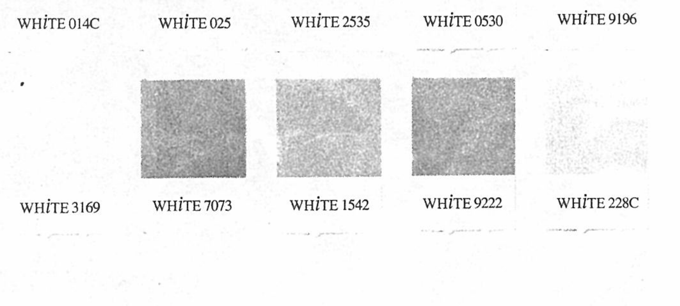
이라크인으로서, 지금의 심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가슴 아프다. 오늘, 지하철을 탔다. 어느 한국사람이 나에게 국적을 물어보았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데…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도저히.

그녀는 결국 흐느꼈다. 그녀 옆에서 통역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통역 - 이계연(아랍어과 강사)

양창모 기자 hufshan@hanmail.net



"색깔있는 화이트를 찾습니다"

광고, 영화, 인터넷, 콘텐츠

2003 화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십시오

화이트는 TTL로 대표되는 광고 캠페인 에이전시에서 출발, 문화를 매개로 한 영화, 인터넷, 콘텐츠 분야로 구성된 culture content company입니다. 화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은 신개념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크리에이티브를 집약시킨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의 인턴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화이트의 인턴이 되며, 졸업과 동시에 화이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2003 화이트 인턴십 모집 요강]

대 상 : [illegible] / 모집인원 : 광고 (AE, CW, GD, PD) 0명 / 영화 [illegible] 0명 / 인터넷 [illegible] 0명 / contents provider 0명
서류접수 : www.white.co.kr 접수기간 : 3월 25일 (화) ~ 4월 16일 (수) 교육 프로그램 WHITE 내부 강사진 [illegible] [illegible] ※상기 강사진 내역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관사 : (주)WHITE comm. / (주)WHITE Pictures / (주)WHITE NEXT / (주)Who's comm. ※자세한 사항은 www.white.co.kr을 참조하세요

WHiTE
www.white.co.kr

영화평 -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를 보고

사랑, 추억은 과거이고 약속은 미래다

장르 드라마 국가 일본 감독 나카에 이사오 출연 다케노우치 유타카, 진혜림
수입 FILM BANK 개봉 겨울(10월 예상) 등급 18세 이상 관람가 음악 엔야(Enya)

3월의 대학은 새내기와 기존 재학생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충만하다. 2월부터 서서히 뜨거워진 기운은 3월에 이르러 가파른 상승세를 탄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한층 달라진 자신을 보며 학업과 술, 동아리에 묻혀 들어간다. 동시에 큐피드의 화살이 여기 저기 날아다님은 물론이다.(문제는 많은 화살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기의 화두이고, 모든 장르의 대표적 주제인 '사랑' 현재 새내기들의 가장 큰 관심사도 그 단어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감히 단언해 본다.

여기 10년의 약속을 하는 갓 스무 살의 연인들이 있다. 아오이와 쥰세이. 영화는 육조에서 아오이가 쥰세이에게 서른 살 그녀의 생일에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강요하며 시작한다. 대개 그렇지만 미래에 어느 곳에서 만나야 한다는 남만적인 약속은 항상 여자가 먼저 제시한다. 이런 제안에 남자들은 항상 "왜 하필 피렌체의 두오모야? 밀라노의 두오모는 안돼?"라는 식의 맥 빠지는 소리로 답하곤 한다. 현실은 여기서 작은 다툼으로 발전하지만 영화 (소설)에서의 쥰세이는 그 어리석은 질문 뒤에 부드럽게 승낙을 하고 행복감에 젖는다. 그 10년간 서로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힘들게 인내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영화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일본의 동경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고 애틋하게 풀어헤친다. 여기서 피렌체는 고미술 복원사로서 일하는 쥰세이와 피렌체의 두오모는 따뜻해서 좋다는 아오이를 잇기 위해서 부여된 절대적인 장소이다. 메디치 가(家)의 후원 아래 르네상스가 만개했던 꽃의 도시 피렌체. 그 도시를 지금 걸어 보면 왜 이들이 피렌체를 따뜻하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도시 보존을 위해서 허물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집, 곳곳에 산재해 있는 르네상스의 산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육중하게 버티고 서 있는 두오모. 21C의 피렌체에는 학문과 예술의 부활을 외치는 18C가 공존하고 있다.

이즘 되면 '어? 「냉정과 열정사이」는 소설책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혼란을 겪을 필요는 없다. 분명히 「냉정과 열정사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츠지 히토나리'와 '에쿠니 가오리'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덧붙여 이 소설은 출판된 후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되어 흥행 바람을 일으키고(3주간 1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소설책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만큼 영화 역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미 원작 소설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이미 상상했던 이미지와 비교를 하고, 그에 따라 만족도 불만족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전 3차원적인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상상한대로 조각들을 맞추면서 그것이 들어맞는 것을 즐거워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반면 좋은 점도 있다. 영화에서는 아오이와 쥰세이의 연애 시절의 장면들과 그들이 헤어지게 된 계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서 관객의 이해를 돕는 제법 친절함도 보여준다.

피렌체의 두오모를 바라보며 쥰세이가 서 있다. 그를 보고 그의 지도 선생이 묻는다. '추억이 있는 모양이구나.' 쥰세이는 단호하게 '추억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추억과 약속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Blu'의 저자는 말한다. 약속은 미래고 추억은 과거이기에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미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늘 우리를 초조하게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반드시 찾아온다고. 쥰세이는 20살의 약속을 과거에 묻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하면서도 끝까지 약속으로 놔두었고, 영화는 이 우직한 어리석음에(로맨틱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리석다) 어떤 결말-책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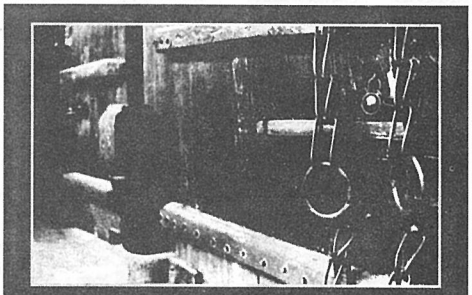
다시 3월, 날씨가 서서히 풀리고 두꺼운 외투를 정리해서 옷장 깊숙이 넣는다. 저번주 극장에선 '나의 그리스식 웨딩'(My Big Fat Greek Wedding)이라는 미국 로맨틱 코미디가 1위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분수대, 붉은 광장, 족쭈의 언덕, 강의실 등에서 장소 불문하고 누군가를 찾아서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중에 헤매고 있다. 서로의 추억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와 만들 약속을 찾기 위해서… 지금은 3월이다.

고창신
(서양 · 서반아어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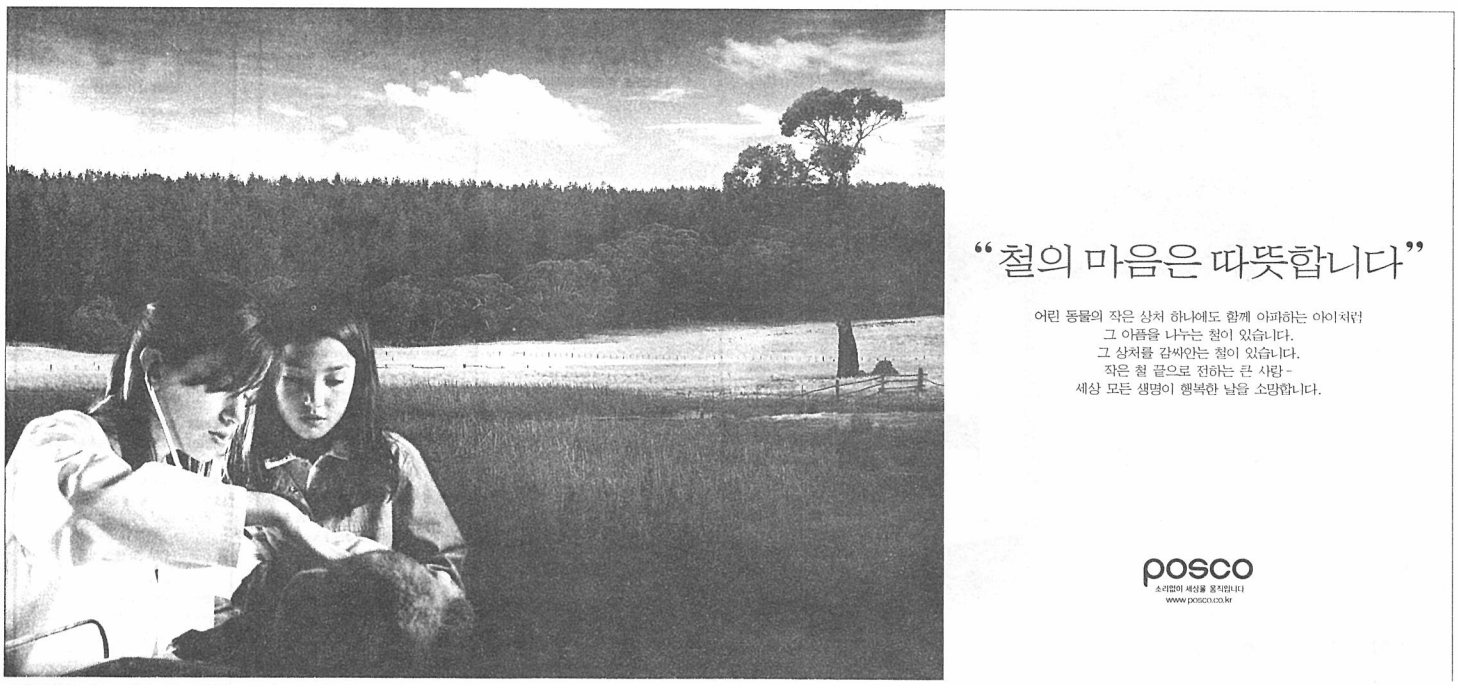
못다 한 말

저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아마 기다란 모래 혀에 엉키면서부터에요. 제 입을 먼저 막고 나서는 모래무덤에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시켓말로 버림받은 거겠죠. 그 날이 아마도 수군거리는 모래들에게 휩쓸리게 되면서부터죠. 시끌벅적 그들의 말로만 재잘거리던, 전 참을 수 없었어요. 짧지만 자랑스럽던 제 혀를 있는 힘껏 내 뺐었죠. 아시다시피 제 말은 '싹둑' 잘려져 미끄로 모래바다로 던져진 거죠. 혀를 내밀면 모래가 억수같이 쏟아져 들어오고 잠겨버릴지도 질식할지도 몰랐던 그때, 모래바람을 막을 재간이 없었죠.
아무튼 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요. 저는 서서히 길들여진 벙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바래진 모래에 묻히고 묻혀 희미해져버린, 저는 말이죠. 긴 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랫말에 불과하죠. 모랫말만을 위해 입을 벌리거든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사월문학 합미선(동학 · 아랍어 99)

– 흑백사진 동아리 누리예 윤보영(아랍 02)



– 흑백사진 동아리 누리예 신동철(생명 02)



카페 > 대학/대학원 > 대학교

한국외대편입모임터입니다^^
(cafe.daum.net/hufstranfer)
회원가입

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회비모금함 사고팔고

My | 메일 | 카페 | 쇼핑 | 검색 | 메신저 | 아바타몰 | 로그인 | 전체보기

접촉? 이제는 접속이다! 우리가 뉴스를 보는 곳은?

▶ 내가 등록한 카페 목록

가입 인사!
자유게시판
준비생들의 궁금점들
편입스터디모임
재학생게시판!
잼난거 창고
메신저나 연락처알기
익명으로말해요
정모게시판!
합격수기

채팅

★★지구치긋한 뱃살!!★★
확빼는 방법??
있습니다. 있구요!!

회원정보
회원가입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고 촛불시위를 범국민적 행사로 만들만큼 네티즌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 동아리나 학회 등의 오프라인(인터넷 상이 아닌 일상공간에서의 만남) 모임의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온라인(인터넷 상의 만남)상의 네티즌은 각종 동호회를 만들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인터넷 동호회로 유명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는 587개의 외대관련 카페가 개설되어 있다. 학과 카페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가운데 서울배움터의 일본어과와 용인배움터의 영어과 카페가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학과 관련 카페 외에도 각각의 목적과 정보성을 띄고 있는 독특한 카페들도 많다. 우리 외대인들은 어떤 생각들로 뭉치고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카페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활동량이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편입생은 외롭지 않다〉

학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카페 중 용인배움터 편입생들의 모임터인 훕스(HUFS)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편입관련 카페 중 하나다. 총 24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 카페에서는 타학교에서 외대로 편입을 온 학생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외대로 편입을 한 'CB-mass는 내친구'라는 대화명을 가진 이 카페의 한 회원(동유럽·노어 01)은 "외대로 편입하기 전에 가입했었던 편입관련 카페가 있었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외대에 편입한 학생이 만들었다고 해서 가입했다"라며 "내가 필요한 정보는 많이 없지만 적어도 외롭진 않아서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편입 관련 카페는 외대로 편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한국외대 편입모임터입니다^^(회원 수 742명)'와 외대의 편입생들을 위한 공간인 '외대 함께(회원 수 22명)', 20대 중·후반의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용히 발랄하게(회원 수 12명)'등이 있다. 이러한 편입 관련 카페가 많이 생겨나는 까닭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편입을 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 편입에 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편입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낯선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재수, 삼수, 사수… 니들이 우리 고민을 알아?〉

소위 말하는 '현역'만이 외대 새내기는 아니다. 현역들에 비해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03학번 삼수, 사수들이 모인 곳, '한국외대 03학번 삼수, 사수…'은 회원 수 354명을 자랑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카페이다. '익명게시판'과 '같이 이야기해요'라는 항목에서는 그들의 우울하고 답답한 여러 고민들을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재수생들의 모임 카페인 '03학번 한국외대 재수생 모여라(회원 수 214)'가 있다.

〈우리학교, 우리지역 출신 학생 여기여기 붙어라~〉

고등학교 동문, 같은 지역 출신의 외대인들은 이런 카페들에서 한번 더 뭉친다. 반포고, 청주 외고, 충주고등 10개의 고등학교 동문들은 굳이 동문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곳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단합을 도모한다. 제주도나 전주, 원주 등 먼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인터넷 카페 상에 향우회를 결성해 자주 접하기 힘든 지역소식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모임를 통해 타지에서 온 외로움을 달랜다.

〈이밖에도…〉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좋아하는 외대생은 '한국외대 스타크래프트 동호회(회원 수 32명)'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외에도 탁구를 즐기거나('한국외대 탁구로 만나는 사람') 자동차에 관심('외대오프로드동호회')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카페도 개설되어 있다. 외대출신의 퀸카, 킹카들은 '놀보(NOLBO)'에서 서로의 미모를 뽐낼 수 있다.

'한국외대 자취생들의 모임(회원 수 30명)' 카페에서는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하숙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와 관련해 궁금한 여러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예비 04학번이나 예비 05학번의 모임도 있다. 외대에 들어오고 싶은 수험생들은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 서로의 모의고사 점수를 공유하고 수시모집에 관련된 토플이나 토익의 정보를 교환한다.

다른 학교에는 어떤 이색 카페가 있을까?

한림대 건국대 인하대 등 많은 대학교에서는 '…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이라는 솔로들의 가상카페를 만들어 캠퍼스 내에서 스쳤던 마음에 드는 이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사진도 볼 수 있게 해놓았다. '전남대 사이맺기'와 '경북대 커플공장'도 이런종류의 카페라 할 수 있겠다. 부산외대에서는 '부산외대 교재 나눔터'라는 카페를 만들어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사고 팔며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저렴하고 간편하게 교재를 구입할 수 있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대에서는 2282명이라는 회원 수를 자랑하는 카페가 있다. '경북대 중앙도서관 가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건의사항은 물론이고 추천교양을 소개하며 인터넷 상에서 여러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자격증이나 취업에 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활동상황을 외대관련 카페를 통해 알아보았다. 우리학교는 젊은이들의 사랑이나 학업에 관련한 카페 수가 타 학교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사회인으로서 함께 고민 해봐야하는 효순이 미선이 추모관련 카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모으고 있는 반전·반미 관련 카페와 같이 지성인으로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카페나 외대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언어관련 카페 등 더 많은 종류의 의미 있는 카페가 생겨서 외대인들의 유대감 형성에 더 깊은 고민이 숨쉴 수 있었으면 한다.

동아리나 축제등의 학생들의 학교행사 참여가 저조하고 개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윗세대의 우려 가운데 외대인들은 사이버상에서 또 다른 제2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곽혜미 기자 ganzzihyemi@hanmail.net

내가 차린 디지털 사진관

디카족이 늘고 있다. 디카족은 디지털카메라를 애용하는 매니아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인터넷 디카족 모임인 디카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아햏햏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지난 9월에 생긴 디매니아(http://dmania.intizen.com)등이 대표적인 디카 포털사이트이다.

인터넷 동호회 '다음카페'로 유명한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에도 860여개의 디지털카메라 관련 카페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 2000년 9월에 개설된 카페 '디지털카메라'(http://cafe.daum.net/disica)에서는 6만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프리챌, 디카러브 등의 사이트에서도 카메라의 기종이나 좋아하는 사진 성향별로 다양한 카페가 등록되어 있다.

지난 12월 외대인을 위한 정보포털 사이트 훕스라이프(http://hufslife.com)에도 디카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바로 '나도 디카족' 코너인데 이곳은 외대인이 직접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소재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흙집으로 그림을 그린 핸드폰과 같은 재미있는 사진은 물론 맛깔스런 떡볶이나 분식집의 국화빵 사진 등 지나치기 쉬운 사물들을 재치있게 표현한 사진들도 볼 수 있다. 또한 불국사의 설경, 파리의 야경 등의 사진은 전문가도 찍기 어렵다는 풍경사진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이곳의 디카족들은 단순히 사진찍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외대앞역 간판에 영문자 'r'이 빠진 채 표기되어 있는 모습을 담아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식도 보여준다. 디지털카메라를 소유한 외대인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외대인 디카족 공간의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장은경 기자 alcong2@hanmail.net

세계영화제 준비위원회

- 4월의 테마 : 『전쟁… 그리고 삶』

피아니스트 (The Pianist , 2002)

감독: 로만 폴란스키
출연: 애드리안 브로디
때: 4월 2일(수) 늦은 5시 30분
곳: 6104 (대학원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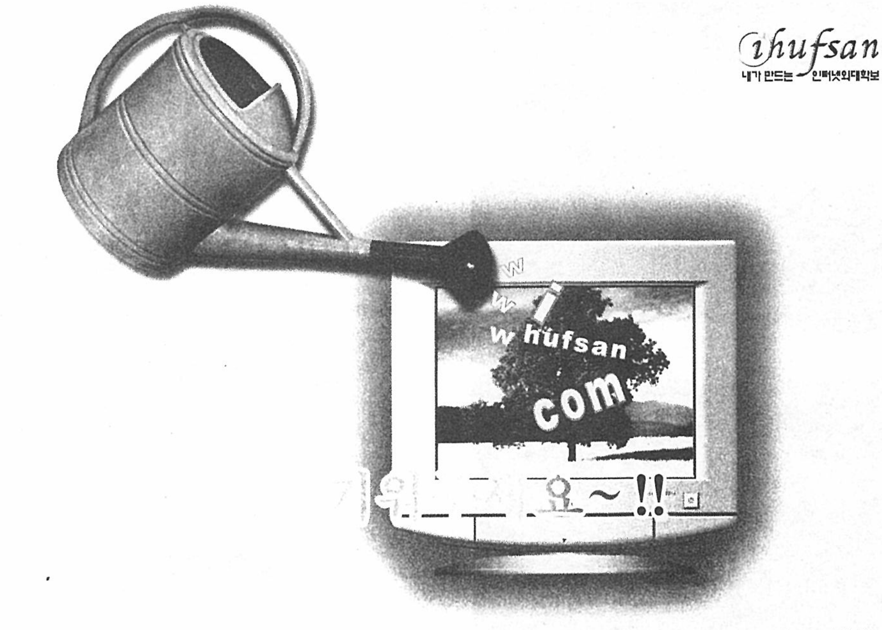
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명한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필만은 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한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한창 타올랐던 바로 그때, 스필만이 연주하던 라디오 방송국이 폭격을 당한다. 유대인 강제 거주지역인 게토에서 생활하던 스필만과 가족들은 얼마 가지 않아 나치 세력이 확장되자 죽음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된다.

기차에 오르려는 찰라, 유명한 피아니스트 스필만을 알아본 군인들은 그를 제지한다. 가족을 죽음으로 내보내고 간신히 목숨만을 구한 스필만.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치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어느 건물에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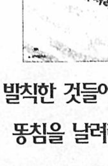
어둠과 추위로 가득한 폐건물 속에서 먹을 거라곤 오래된 통조림 몇 개뿐인 은신생활 중, 스필만은 우연찮게 순찰을 돌던 독일 장교에게 발각되고 만다. 한눈에 유태인 도망자임을 눈치챈 독일 장교. 스필만에게 신분을 대라고 요구하자 스필만은 자신이 피아니스트였다고 말한다.

한동안의 침묵속에 스필만에게 연주를 명령하는 독일 장교. 어쩌면 지상에서의 마지막 연주가 될 지도 모르는 그 순간, 스필만은 온 영혼을 손끝에 실어 연주를 시작하는데….

▶자료제공- 서현미(서양·불어 99)



책소개



발칙한 것들에게 똥침을 날려라

백현락 지음 / 청하출판사 / 9,500원

미국의 세계 지배에 대한 욕심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전세계의 농구광들이 NBA를 보며 그들의 체력에 감탄하고 TV앞의 청소년들은 헐리우드 배우의 몸짓 하나에 열광한다. 우리는 진정 미국의 틈새를 파고드는 정책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가. '발칙한 것들에게 똥침을 날려라'는 이라크 침공중인 미국과 부시대통령을 비꼬는 유머와 신랄한 비판을 통해 미국식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94년 발간되어 눈길을 끌었던 '미국 분 미국인 미국놈'의 개정판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가짐을 꼬집어 낸다. 더불어 지금까지 간과했던 한국인의 주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문화 캘린더

공연정보

제84회 정기 연주회 〈봄〉

공연일정 : 4월 4일(금)
공연일시 : 오후 7시 30분
공연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가격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
문의전화 : 02)399-1111

국립극장 2003 완창 판소리 -천하명창 열 바탕-

공연일정 : 3월 ~ 11월
공연일시 : 매달 마지막주 오후 3시
공연장소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및 하늘극장
티켓가격 : 전석 2만원
문의전화 : 02)2274-3507~8

마츠 에크의 쿨베리 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일정 : 2003년 4월 3일(목) ~ 4월 5일(토)
공연일시 :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4시/ 4월 5일 토 오후 6시
공연장소 : LG아트센터
티켓가격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3만원
문의전화 : 02)2005-0114

다이나믹 댄스, 비트

공연일시 : 4월 4일(금)
공연장소 : 한전아트풀센터
티켓가격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전화 : 02)425-6031